"아베 정권 군국주의 부활·우경화 규탄"

방일 민주의원들, 반역사적 행태 비판

日경찰, 충돌 우려 야스쿠니行 저지

"일본 국민이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를 막아달라. 한국민들도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데 힘을 합칠 것이다."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오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항의하려던 민주당 이종걸·이상민·문병호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은 끝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초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 입구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입구 근처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의원들에게 접근하려 하자 일본 경찰들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의원들을 신사에서 더 먼 곳으로 데려갔다.

당시 이종걸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이 "평화를 원한다",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회귀를 규탄한다"는 등 구호를 외치자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을 차에 태운 뒤 이들의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로 보냈다.

결국 현장에 남은 이상민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오전 9시께 신사 주변 노상에서 한국과 일본 취재진 수십명에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힌 뒤 "우리는 또다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본 국민과 힘을 합쳐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려 한다"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어리석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의 정책들이 한일관계와 동북아 및 세계의 선린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보수 우경화를 중단하고 평화와 한일 우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관계자들은 이날 아침 의원들의 숙소로 찾아가 야스쿠니 행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원들의 야스쿠니 방문이 혐한(嫌韓) 성향을 보이는 일본 우익단체들을 자극함으로써 재일한인들의 안전과 생계가 타격받을 수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재일민단 측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인한 파국적인 상황을 계속 방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현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이곳에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문병호(왼쪽)·이상민 의원이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주변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다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본 국민과 힘을 합쳐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려 한다"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어리석음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狂氣 휩싸인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죽이자"

우익세력, 한국 의원단 방문에 반한감정 표출

일본 패전일인 15일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주변에는 일본 우익세력이 뿜어내는 '광기'(狂氣)가 넘쳐났다.

신사 내부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려는 참배객들이 줄을 이은 가운데 밖에서는 단체로 몰려온 우익들이 곳곳에 포진한 채 군국주의 영광의 재연을 부르짖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것이라는 소식에 자극 받은 듯 격한 언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한국 방송사 로고를 부착한 카메라가 눈에 띄자 "한국 언론은 돌아가라", "멋대로 언론을 이곳에 불러모았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심지어 "한국인을 죽이자"라는 구호도 튀어 나왔다. 한국 정치인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는 등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사 외곽에 배치된 일본 경찰에게는 "뭣 때문에 여기를 지키느냐. 돌아가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평소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신사 내부에는 이른 아침부터 참배 행렬이 이어져 오전 9시30분께에는 참배 장소인 '하이덴' 앞으로 가려고 순서를 기다리는 참배객이 수백 명에 달했다. 시종 질서 있고 차분한 모습이어서 신사 안팎의 풍경이 극명히 엇갈렸다.

단체 참배객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전세 내 찾아온 전사자의 유족연합회가 단연 눈에 띄었다. 조부가 전쟁 중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고이케 다케시(小池武·52) 씨는 "할아버지가 야스쿠니에 합사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야스쿠니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 등이 합사돼 있어 참배 행위가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일본이 평화롭게 사는 게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덕"이라고 나름의 참배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인들의 신사 참배도 잇따랐다.

참배객들의 의도나 목적은 각기 달랐지만, 야스쿠니 신사가 우익의 상징이자 전쟁 미화시설이라는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신사 내에 있는 전시시설인 유슈칸(遊就館)에서는 특별전시회 '대동아전쟁 70년전' 제2부가 열리고 있었다. /연합뉴스

아베 각료 3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국회의원 100여명도

일본 아베 내각 각료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 담당상이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특별보좌관을 야스쿠니에 보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공물료를 사비로 봉납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희생하신 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숭(尊崇)의 뜻을 담아 하기우다 특별보좌관을 통해 (공물료를) 봉납했다"고 설명했다.

하기우다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전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갖고 애도를 (대신) 표하고 오늘 참배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 달라"는 아베 총리의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명의 공물료 봉납은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동시에 전몰자에 대한 존숭의 뜻을 표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국내 보수 지지층에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10월 야스쿠니 추계 예대제(例大祭)때 등에 야스쿠니를 참배할 여지를 담겨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야스쿠니를 참배한 각료 3명은 아베 내각의 대표적인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 올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때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한편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0여명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연맹인 이 모임은 매년 야스쿠니 춘계, 추계 예대제때와 8월15일에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해 왔다. /연합뉴스

이집트, 유혈진압 사망자 500명 육박

한달간 비상사태 선포

국제사회 비난 잇따라

이집트 과도정부가 14일(현지시각)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 속에서 이집트 전국에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과도정부를 이끄는 아들리 만수르 임시대통령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심각한 파괴 행위로 군병력은 경찰을 도와 치안 확보와 공공·민간 자산, 시민 보호에 노력하라고 명령했다.

이집트 내각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매일 오후 7시~오전 6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통행금지가 적용되는 도시는 수도 카이로와 기자,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등 유혈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이번 발표는 이날 이집트 군경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집결지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무르시 찬반 세력의 유혈충돌이 벌어진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집트 보건부는 15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 전날 군경과 시위대의 유혈 충돌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민간인 421명과 군경 43명 등 모두 464명이 숨지고 357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총상이나 최루 가스에 의한 질식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집트 정국 혼란이 비상사태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부통령은 이날 오후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이집트 군부가 시위대의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집트 당국이 시위대와 대화하는 대신 폭력을 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이집트의 유혈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남악신도시 에드가 5차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16587호(2013. 07. 26)에 의거 분양신고를 득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허가번호:2013-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신축허가-17)
■ 분양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6
■ 대지면적 : 2,062.5㎡
■ 건축연면적 : 22,522.03㎡
■ 건축물의 층별용도 : 지하 2층(주차장, 기계실, 주차관리실및관리사무소),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 ~2층(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 15층(오피스텔 306세대)
■ 분양대상 및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5층 1개동(오피스텔 306세대)

▣ 분양대상 및 면적 (단위:㎡)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층수
TYPE A	52	59.2800	21.5348	13.6121	94.4269	8.6473	3~15층
TYPE B	78	38.8800	14.1241	8.9277	61.9318	5.6715	3~15층
TYPE C	144	29.6400	10.7675	6.8060	47.2135	4.3237	3~15층
TYPE A-1	32	59.2800	21.5348	13.6121	94.4269	8.6473	8~15층
소 계	306						

▣ 분양금액 및 납부유형 (단위:㎡,천원)

군	타입	향별	층별	호별	공급	분양금액 대지비	분양금액 건축비	분양금액 부가세	분양금액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차(15%) 2013.11.25	중도금 2차(15%) 2014.03.25	중도금 3차(15%) 2014.07.25	중도금 4차(15%) 2014.11.25	잔금 30% 입주지정일
1	A	남향	8~15	01,06	16	37,210	78,900	7,890	124,000	12,400	18,600	18,600	18,600	18,600	37,200
			5~7	01,10	6	36,640	77,600	7,760	122,000	12,200	18,300	18,300	18,300	18,300	36,600
			3~4	01,10	4	35,730	75,700	7,570	119,000	11,900	17,850	17,850	17,850	17,850	35,700
		북향	8~15	10,19	16	37,210	78,900	7,890	124,000	12,400	18,600	18,600	18,600	18,600	37,200
			5~7	14,23	6	36,640	77,600	7,760	122,000	12,200	18,300	18,300	18,300	18,300	36,600
			3~4	14,23	4	35,730	75,700	7,570	119,000	11,900	17,850	17,850	17,850	17,850	35,700
2	B	동향	8~15	07~09	24	26,740	56,600	5,660	89,000	8,900	13,350	13,350	13,350	13,350	26,700
			5~7	11~13	9	25,830	54,700	5,470	86,000	8,600	12,900	12,900	12,900	12,900	25,800
			4	11~13	3	24,690	52,100	5,210	82,000	8,200	12,300	12,300	12,300	12,300	24,600
			3	11~13	3	23,780	50,200	5,020	79,000	7,900	11,850	11,850	11,850	11,850	23,700
		서향	8~15	20~22	24	26,740	56,600	5,660	89,000	8,900	13,350	13,350	13,350	13,350	26,700
			5~7	24~26	9	25,830	54,700	5,470	86,000	8,600	12,900	12,900	12,900	12,900	25,800
			4	24~26	3	24,690	52,100	5,210	82,000	8,200	12,300	12,300	12,300	12,300	24,600
			3	24~26	3	23,780	50,200	5,020	79,000	7,900	11,850	11,850	11,850	11,850	23,700
3	C	남향	5~7	02~09	24	20,140	42,600	4,260	67,000	6,700	10,050	10,050	10,050	10,050	20,100
			4	02~09	8	19,800	42,000	4,200	66,000	6,600	9,900	9,900	9,900	9,900	19,800
			3	02~09	8	19,000	40,000	4,000	63,000	6,300	9,450	9,450	9,450	9,450	18,900
		북향	8~15	11~18	64	20,480	43,200	4,320	68,000	6,800	10,200	10,200	10,200	10,200	20,400
			5~7	15~22	24	20,140	42,600	4,260	67,000	6,700	10,050	10,050	10,050	10,050	20,100
			4	15~22	8	19,800	42,000	4,200	66,000	6,600	9,900	9,900	9,900	9,900	19,800
			3	15~22	8	19,000	40,000	4,000	63,000	6,300	9,450	9,450	9,450	9,450	18,900
4	A-1	남향	8~15	02~05	32	37,210	78,900	7,890	124,000	12,400	18,600	18,600	18,600	18,600	37,200

▣ 공통사항
- 상기 총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실당 계약면적에는 입주자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입주자부대시설,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상 306실은 4개군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청약신청시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 및 외부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 부분, 주민편의시설, ELEV홀, 계단실, 경비실, 우편물 수취함 등)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되었습니다. 단, 2층부터 15층까지 복도 및 ELEV홀, 계단실, 통신실 부분은 오피스텔만 균등 배분되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에는 배분되지 않습니다. 각 용도별 공용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 경우 익일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자격
- 분양공고일(2013. 08. 16)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
- 1인당 1군, 2군, 3군, 4군 각각 1실 1인당 최대 4실까지 청약가능(단, 동일인이 동일군에게 청약 가능 호수를 초과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층, 호수, 타입은 추첨으로 결정됨

▣ 분양일정 및 청약신청금
1) 분양일정

청 약 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	청약장소	당첨자 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2013. 08. 17.(토) 10:00 ~ 15:00	2013. 08. 17.(토) 16:00	당사 견본주택 (남악리2255 견본주택)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동, 호수, 타입을 무작위로 결정

2) 청약신청금 및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청 약 금 납 부 방 법	
100만원	현금납부시 : 1백만원권 수표 준비하여 견본주택 내방	계좌이체시 : 광주은행 600-107-429897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

-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 수납시, 자기앞 수표 100만원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무통장 입금시 신청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오피스텔 견본주택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또는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입금증제출),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청약신청인 명의)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 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 신청금 납입 영수증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또는 법인)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서명 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하여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일시 : 2013. 08. 19.(월) 13:00시 ~
- 환불방법 : ·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
  · 환불계좌 명의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 환불시 청약 신청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 및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예비 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며, 미 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및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에 따라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 계약기간 : 2013. 08. 17(토) 16:00 이후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5번지, 전화번호 : 061-282-1710)

2)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 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 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또는 법인)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서명 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600-107-429897	코리아신탁(주)

▣ 중도금 융자안내
- 대출기관 : 대출기관은 추후 청약신청 및 계약기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대출금액 : 오피스텔 총 분양대금의 최대 60%(중도금 1~4회차)까지로 무이자 적용합니다.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으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조건은 계약자 중 금융기관 대출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또는 대출금 감액시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족금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번호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 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 및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4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에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15. 05월 예정 (사용승인 이후)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통유의사항
- 면적표기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0.3025]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수점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합니다.(단, 단순 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3~15층 공용 복도 및 통신실은 오피스텔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 본 건축물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주변개발,조망,일조,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모형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의 이미지,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등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생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변동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내 입주자 부대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마감자재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단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 입주자 부대시설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물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외부 공개공지, 옥상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이외 시설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카달로그 이미지(투시도, 조감도 등)에는 옥상 기계설비(급배기 팬, 급배기구 등) 표현이 없으나 추후 공사완료 시에는 설치됩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건축, 기계, 전기)은 옥상 녹화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스크린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 세대는 냄새, 소음,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이 폭, 높이 등의 협소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